

#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 기요하라 타헤 에

4 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8 개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는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고질적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 를 이유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일보 ‘이웃’ 은 17 ~ 18 세기 일본 치산·치수 영웅 세 사람의 개발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 를 해왔다 .

인력만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마꾼 역사 ( 役事 ) 는 200 ~ 300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의 순환을 반복하며 그 공과를 후대가 안으며 살고 있다 . 그 현장을 3 회에 걸쳐 연재한다 .

## 관리와 공유 주민과 대화 종교제는 설득... 대역사 기초공사는 ‘소통’



기요하라 타헤에 동상



이즈모 ( 일본 )= 글 전정희 기자 · 사진 윤여홍 선임기자

일본 이즈모반도의 사다운하가 개통된 지 올해로 223 년째다 . 우리의 동해를 면하고 있는 사다운하는 일본 막부시대 일개 번 ( 藩 ) 의 치수 역사일 수 있다 . 18 세기 후반의 그 역사 ( 役事 ) 는 토목 · 건설 기술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즈모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자연은 개발 후에도 후대가 대대손손 물려받아 삶의 터전을 삼는다는 점에서 ‘그 후 200 여년’ 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에 충분하다 .

성경에서 하나님은 땅을 인격화해서 그 창조력을 땅에 위임 ( 창 1:12) 했다 . 그러기에 생태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은 생산과 생명의 주체다 . 그러나 기술문명의 발전은 기후온난화와 생태질서의 교란을 불렀다 . ‘세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 는 인간생명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를 땅을 통해 어떻게 잘 다스리는냐가 지구공동체의 관건이 됐다 .

이에 세계 기독교는 인간 구원 중심의 신학에서 생태계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 .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조차 4 대강 개발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에 안고 있는 ‘숙제’ 때문이다 .

유량 결식 농민 위해 나서다

사다운하 개발 과정은 관 ( 官 ) 농민 종교계 등이 얹힌 난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제의 시대라고 해도 농민의 뜻을 막부가내로 거스를 수 없었으며 종교계가 자연 훼손을 보는 시각에 등을 돌릴 수 없었다 . 또 관 내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은 공유하나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예산 문제와 구성원 간 파워게임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

**홍신평해로 유량결식 농민 목적 10 대 때 치수 의지 .70 대에 실현 연인원 7 만명 작업 3 년만에 완공**

기요하라 타헤에 ( 1711 ~ 1787 ) 는 일본 전국시대의 명장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올지 않는 새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로 운하를 개발했다 . 10 대 때부터 홍수 피해로 유량 결식하는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치수 의지를 다졌다 . 그리고 76 세에 운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두었다 . 그가 완공한 운하의 길이는 길이 8 km , 폭 36 m 이다 . 지난 성탄절 동해 바다가 펼쳐진 일본 마쓰에시 에쿠모항 , 내륙 신지코 ( 湖 ) 에서 흘러 내려온 강물이 바다에 닿는 작은 포구다 . 거센 눈보라와 강풍으로 몸 가누기가 힘들었다 . 운하에 정박한 요트마저 요동친다 . 잘 정비

된 보 ( 沢 ) 를 따라 상류로 거스르는 운하길은 이제 한가한 강물일 뿐이다 . 그러나 한때 이 운하는 이즈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대도시 오사카 , 에도 등으로 운송하던 중요한 수운로였다 . “에도시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기타마에센 ( 北前船 ) 이 있었어요 . 이즈모 평야의 쌀도 기타마에센을 통해 오사카 , 에도 , 홋카이도 등으로 운송됐습니다 . 한때 사다운하가 생기면서 이 운송선이 이즈모반도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됐으니 물류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 18 세기만 하더라도 수운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었지요 . ”

이즈모 지방 역사가 사사키 다케오씨가 보를 따라 걸으며 설명했다 . 운하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측 해안선을 따라 계속가다 사카미미나토항 ( 상단 지도 참조 ) 을 거쳐 나카우미와 신지호수로 돌아와야 했다 . 이 운송로 길이가 대략 100 km . 하지만 사다운하가 완공되면서 10 분의 1 로 줄었다 .

그러나 당시 이즈모 농민에겐 운하가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 . 큰 비가 왔다 하면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고 마는 홍수가 당면한 현실이었다 .

재정 이유 , 치수 외면하는 막부

1639 년 대홍수 . 전 재산을 털어 간척사업을 벌였던 오오카지 시치베에가 18 세에 겪었던 불난리였다 . 홍수 직후 마쓰에번은 댐진강을 만들어 치수에 힘썼으나 수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험한 산골짜기를 따라 물이 일시에 신지코로 흘러들면 삼시간에 평지가 물에 잠겼다 . 평야는 물론 시내라고 예의가 아니었다 .

기요하라 타헤에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다 . 무사작 기질을 갖춘 데다 총명했다 . 그는 10 세 무렵 우연히 마쓰에번의 무사 아오누마 로크로 우차에몬이란 인물을 만나면서 물리가 트이게 된다 . 요즘으로 치자면 고시를 목표로 한 꿈을 갖게 되는 셈인데 그 말년 무사의 꿈을 15 세에 이룬다 . 1721 년과 22 년 홍수로 신지코가 넘쳐 유량만이 발생한다 . 번의 말단이 된 그는 농민을 위해 무엇이 해결해야 할지 결심을 하게 된다 . 아오누마에게 “왜 번은 홍수가 나지 않게 고치지 않느냐” 고 따지던 당돌한 인물이기도 했다 .

1732 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자연재해는 식량난을 가져왔다 . 이즈모반도 역시 대홍수로 폐허가 됐다 . 앞선 데 달린 격으로 대두기때까지 극성을 부려 일본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 이때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흠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

청년 타헤에는 신지호수의 수위를 내리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수리 시설공사로 농민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 하지만 아버지와 후견인 아오누마가 죽자 치수의 꿈이 흔들리게 된다 . 그가 공복으로서 뜻을 펼치게 한 것은 어머니다 . 장남이었던 그가 가업을 잇지 않는 것에 실망치 않고 “신지 호수의 홍수를 꼭 막아 달라” 고 독려하곤 했다 .

타헤에는 번의 공복으로 출세해야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리하여 47 세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정식 무사가 됐고 10 년 뒤 치안담당 , 행사관리담당 , 노사담당 , 감사담당 등을 거치게 된다 .

“1784 년 홍수는 마쓰에성 밑까지 차오르는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 재정을 이유로 나 몰라라 하던 번의 관리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타헤에의 운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 10 대 때의 계획이 70 대가 되어서야 실현할 기회가 생긴 거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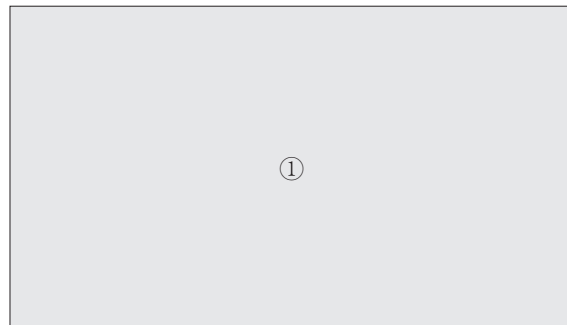
**당시엔 쌀 생산증가등 이익 창출 사다운하 개통 올해로 223 년 맞아 운하 기능 상실 요트장 정도만 활용**

사사키 다케오씨는 “홍수로 먹을 것이 없는 데도 쌀로 세수를 걷어 왔던 번의 경직성에서 알 수 있듯 타헤에의 제안 역시 영주 등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묵살 당했다” 는 것이다 . 게다가 타헤에를 견제하려는 정치 세력은 지난 10 여년간 홍수 피해를 없애는 점을 들어 고숙 승진을 거듭하던 그를 견제했다 .

한때 이 무렵 대를 이은 젊은 성주 하마사토가 치수 무대책을 꾸짖자 실권을 쥔 반대파가 어쩔 수 없이 타헤에를 알현시킨다 . 가혹한 세금 등에 따른 농민 반란이 그 배경이었다 .

권력에 돈 되는 강 개발

타헤에는 성주에게 타코강과 슈타유강의 원류를 관통해 운하를 만들자고 보고한다 . 마치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 운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홍수피해 예방 , 늘지대 간척 , 여객수송 , 농산물 및 해산물 운송과 같은 다목적 개발이었다 . 번이 어떠한 회생을 지르더라도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헤에의 생각이었다 . 공사기간 3 년 , 작업자 연인원 7 만명 , 품삯 쌀 1 만 6000 섬 . 회생을 각오한 타헤에와 달리 성주의 계산은 달랐다 . 운하를 개발해 배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 . 번의 영구적 수입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전폭 지원에 나섰다 . 국가공공사업의 진짜 의



①바다 입구의 사다운하 , 최우로 고깃배가 늘어서 있다 .  
②운하가 쓸모 없게 되자 요트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③신지코 ( 湖 ) 의 석양 .  
④마쓰에성 .  
⑤범람했던 신지코의 오늘

도가 드러난 셈이다 .

타헤에 나이 73 세 되던 해 공사가 시작됐다 . 10 개 마을에 걸쳐 수용 토지가 발생했고 당연히 농민이 반발했다 . 공사 현장에 울타리를 둘렀으나 농민이 번번이 뚫아 버렸다 . 상명하복이 엄한 일본 막부시대라는 걸 감안하면 그 반발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 농민들은 논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타헤에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 밤에 몰래 울타리와 측량 공사에 나서 일을 진행했던 것 . 늘지대엔 밤에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 ‘타헤에 게’ 라고 부르는 이유다 . 타헤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난제는 종교계였다 . 사다신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 . 신사 정문 앞으로 운하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 더구나 몸을 맑게 한다는 연못 ‘미즈미이케’ 가 개발 사업으로 마르게 됐으니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

이날 만난 사다신사 책임자 ( 宮司 ) 아사야마 요시쿠니 (79) 씨는 이렇게 말했다 . “종교와의 마찰은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 타헤에의 경우 신사를 수백 번 훑아 농민을 위한 개발임을 강조하고 , 성소 ( 미즈미이케 ) 를 대신할 곳을 만들어 정성을 기울였어요 .

사업의 정당성과 진심이 우선되니 신사가 양

보했다고 합니다 . ”

타헤에는 또 사찰 측 설득을 위해 매일 바닷가에서 몸을 씻고 사찰까지 2 km를 걸어와 기도를 드렸다 .

테라이 도시오 ( 향토사학자 ) 씨는 “18 세기 말 토목 기술로 늘지대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기술 축적을 해 나갔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

사다강 ( 운하 ) 은 그래서 완공됐다 . 수십 명의 인부가 늘 공사 과정에서 죽었고 , 개통 직전 타헤에 역시 생을 마감했다 .

26 일 다시 둘러본 사다강 일원 . 운하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 한국의 군 단위가 그렇듯이 이곳도 친수환경을 조성했어도 인구 감소로 이용할 사람이 없다 . 요트계류장 정도나 활기가 있을 뿐이다 .

200 여년 전 지금과 같이 생태계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 오직 쌀 생산 증가와 치수가 목표였다 . 사다 운하는 당대에 이익을 창출했다 .

그러나 이산이수 ( 移山移水 ) 가 가능한 현대의 인공자연은 국가가 관리능력을 상실할 때 홍물과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도 고려해

jhjeon@kmib.co.kr

취재 지원 :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 日 인간자연과학연구소 ,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에 감사장



국민일보 조민제 ( 사진 가운데 ) 대표이사 사장이 일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 (66 · 왼쪽 ) 이사장으로부터 자연개발 보도와 관련해 감사장을 받았다 .

고마츠 이사장은 16 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 층에서 열린 국민가쪽 주요 예배에 참석해 조민제 사장에게 “국민일보 섹션 ‘이웃’ 이 지난 1 월 일본 이즈모 반도의 치산 · 치수 영웅 3 인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과 자연’ 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 수여식은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김현철 (78 ·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 고문이 배석했다 .

지난 1 월 6 일 , 13 일 , 20 일 등 3 회에 걸쳐 보도된 기획물 ‘하나님과 자연’ 은 논란을 빚고 있는 4 대강 개발 문제에 대해 창조질서 시각으로 해답을 얻고자 일본 시마네현 ( 이즈모 ) 에서 취재가 이뤄졌으며 ,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취재를 지원했다 . 일본 치산 · 치수 영웅 오카지 시치베에 (1621 ~ 1689) 등 3 인은 운하 , 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국민의 편에서 추진했다 . 본보는 이들이 개발한 300 여년 후 자연환경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했다 .

조국현 기자

## 命をかけて8km の運河をつくる

# 清原太兵衛

4 大江開発事業に対して 8 つの教団協議体である韓国キリスト教教会協議会 (NCKK) は事業中断を促した。その一方で、保守志向の韓国キリスト教総連合会は「長引く水問題の解決と地域活性化」を理由に支持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国民日報「イウツ (隣り)」は 17 - 18 世紀の日本における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開発事例を通じてケーススタディ (Case study) をしてみた。

人力だけで大自然の流れを変えた事業は 200 - 300 年が過ぎた今も生態の循環を繰り返して、その功績を後代が抱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その現場を 3 回にわたって連載する。

## 住民、藩、寺社…利害が複雑にからみあう難題を克服、歴史的大事業を達成



清原太兵衛 銅像



出雲 (日本) = 記事 全正熙記者、写真 尹汝弘専任記者

日本の島根県、島根半島の佐陀川が開通してから今年で 223 年目だ。私たちの東海 (日本海) に面している佐陀川は、日本幕府時代の一つの藩の治水の歴史であるといえる。18 世紀後半のその普請は土木・建設技術が当時とは格段に差がある現代と、単純に比較することは不可能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だが、自然は、開発後も後代が子子孫孫に受け継いで、生の基盤にするという点で「その後 200 余年」はケーススタディ (Case study) とするのに十分値する。

聖書で神様は地を人格化してその創造力を地に委任 (窓 1: 12) した。生態秩序の観点で見ると、地は生産と生命の主体だ。しかし技術文明の発展は気候温暖化と生態秩序の攪乱を生じた。「種を実らす植物と、実を作る木」は人間の生命維持のための神様の思いやりであるが、これを地を通じてどのようにうまく治めるのが地球共同体の重要な課題になった。

ここに世界キリスト教は人間救援中心の神学から、生態系全体を救援の対象と見るパラダイムの転換をはかった。クリスチャンだけではなく他の宗教人でさえ 4 大江開発に対して深く悩むことは、人間と自然の間にある「宿題」のためである。

### 流浪の民のために先頭に立つ

佐陀川の開発過程は、官、農民、宗教界などが関わる難題を、どのように賢く克服するか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専制の時代と言っても農民の意に頑なにあらが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宗教界が自然破壊を見る目に背を向け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また官には力不足だった。険しい谷に沿って水が一斉に宍道湖に流れ込めば一瞬にして平地が水に浸った。平野はもちろん、市街地も例外ではなかった。

清原太兵衛 (1711—1787) は日本戦国時代の名将徳川家康のように、「鳴かない鳥を、鳴くまで忍耐して」運河を開発した。10 代の時から洪水被害のために流浪乞食をする農民の惨めな現実を見ながら、治水の意志を固めた。そして 76 歳で運河開通を目前にして死んだ。彼が完工した運河の長さは 8 k m、幅は 36m だ。

**洪水被害で、流浪の民となった農民を目撃し、10 代の時に治水の意志を固め…70 代で実践、工員 7 万人、3 年で完工**

先般のクリスマスの日、東海 (日本海) が広がる日本、松江市の恵曇港。内陸の宍道湖から流れ出た川水が海につながる小さな港だ。荒々しい吹雪と強風で姿勢を保つのも大

変だった。運河に停泊したヨットも揺れる。よく整備された堰に沿って上流に続く運河筋は、今は穏やかな川水を湛えるだけで。しかし当時のこの運河は、出雲平野で生産された米を大都市である大阪、江戸などへ運送した重要な水運路だった。

「江戸時代、海岸線に沿って移動する北前船がありました。出雲平野の米も北前船を通じて大阪、江戸、北海道などに運送されました。佐陀川が出来てこの運送船が島根半島の内陸に深く入りこんで行くことになり、物流革命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のですね。18 世紀は水運手段が一番効果的だったのです」出雲地方の歴史家である佐々木武男氏が堰に沿って歩きながら説明した。運河が開発される前には、船は右側にある島根半島の海岸線に沿って行き境港港 (上端地図参照) を経て中海と宍道湖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運送路の長さがおよそ 100Km。佐陀川が完工してそれが 10 分の 1 になった。しかし当時、出雲の農民にとっては運河が切迫した問題ではなかった。大雨が降ると穀倉地帯が水に浸ってしまう洪水が直面する現実だった。

### 財政を理由に、治水から目をそらす藩

1639 年の大洪水。全財産をはたいて干拓事業をした大堀七兵衛が 18 歳の時に経験した水騒動だった。洪水直後の松江藩は天神川を造って治水に力を尽したが、水害を防ぐには力不足だった。険しい谷に沿って水が一斉に宍道湖に流れ込めば一瞬にして平地が水に浸った。平野はもちろん、市街地も例外ではなかった。

清原太兵衛は農家の息子だった。武士的な気質を備えたうえに聡明だった。彼は 10 歳の頃、偶然に松江藩の武士、青沼六郎左衛門という人物に会い、物のことわりが分かるようになる。今で言う和国家試験にあたるが、それを目標にした夢を持つようになる。彼はその末端の武士となる夢を 15 歳で成し遂げる。

1721 年と 22 年、洪水で宍道湖があふれて流民が発生する。下級藩士になった彼は農民のために何とか解決しようと決心する。青沼に「どうして藩は洪水が起らないようにしないのか」と問い詰めるような唐突な面もある人物でもあった。

1732 年、日本列島を強打した自然災害は食糧難をもたらした。島根半島もやはり大洪水で廃墟になった。泣き面に蜂でイナゴの大群の被害もあって、日本全国で数十万名の餓

死者が発生した。この時、飢餓に苦しむ人々が土まで食べたという記録もある。

青年太兵衛は、宍道湖の水位を下げれば洪水被害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水利施設工事で農民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するようになる。しかし父と後見人青沼が死ぬと治水の夢が難しくなる。彼に公僕としての意味を教えたのは彼の母だ。長男だった彼が家業を引き継がないことに落胆せずに、「宍道湖の洪水を必ず防いでほしい」と励ました。太兵衛は藩の公僕として、出世すれば治水事業ができると思った。そして 47 歳にして刀を腰にさして道を歩くことができる正式な武士になり、10 年後、治安担当、行事管理担当、人事担当、監査担当などをするように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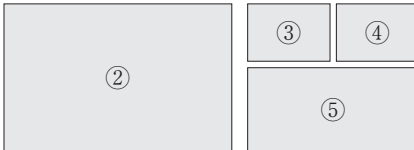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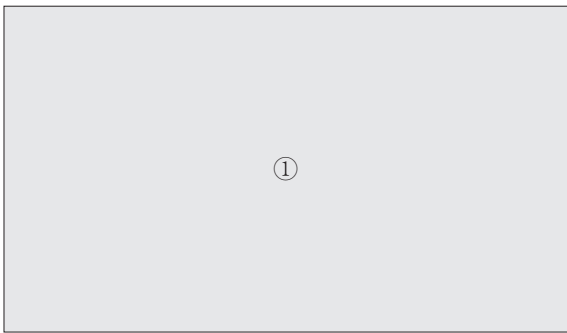
「1784 年の洪水は松江城の下まで水位が上がってくる脅威的なものでした。財政を理由にして関心を持たずにいた藩の役人たちが、その時になってようやく気づいて太兵衛の運河提案を受け入れます。10 代の時の計画が 70 代になってようやく実践する機会ができたのです」

**当時は米生産増加など利益を創出した佐陀川。開通から 223 年、運河としては使われないが、ヨットハーバーが賑わう**

佐々木武男氏によると「洪水で食べ物がないのに米で税収を集めて来た藩の硬直性からみても分かるように、太兵衛の提案も領主らにとって、即座に必要ではないので黙殺されていた」というのだ。そのうえ太兵衛を牽制しようとする政治勢力は、直近の 10 年あまり洪水被害がないという点をあげて、昇進に次ぐ昇進でスピード出世した彼を阻害した。この頃、代を引き継いだ若い城主、治郷が藩の治水の無対策を叱ると、実権を握っていた反対派が仕方なく太兵衛に謁見させた。苛酷な税金などによる農民反乱がその背景にあった。

### 藩主は「金になる河川開発」と見た

太兵衛は城主に多久川と忠太夫川の源流を貫通して運河を造ることを提案する。まるで洛東江と漢江を連結して運河を造ることと同じ脈絡だ。洪水被害予防、沼地干拓、旅客輸送、農産物及び海産物運送のような多目的な開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太兵衛の考えだった。工期 3 年、作業者は年間人員 7 万人、賃金米 1 万 6000 俵。犠牲を覚悟した太兵衛



①佐陀川の河口。左右に漁船が並んでいる。②運河に使われなくなり、ヨット場に活用されている。③宍道湖の夕日④松江城⑤かつて氾濫した宍道湖の今日。

取材支援:

日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翻訳 金有辰  
監修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jheon@kmib.co.kr

### (財) 人間自然科学研究所、国民日報趙受済社長に感謝状



国民日報 趙受済 (チョミンジェ、写真中央) 代表取締役社長が、日本人間自然科学研究所小松昭夫 (66・左側) 理事長から、自然開発報道に関して感謝状を受けた。

小松理事長は 16 日ソウル・汝矣島の国民日報ビル 11 階で開かれた“国民家族”の水曜礼拝に参加して、趙受済社長に国民日報セクション・イウツ (隣り) が去る 1 月、日本島根半島の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業績

に対して、「[神と自然] という観点で報道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光栄に思う」と、感謝状を授与した。授与式には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金顕哲 (キムヒョンチョル、78・前放送委員会企画室長) 顧問が同席した。

チョ・グッヒョン記者